

# 닭 1마리 팔면 38원 남아...육계농장 수익 4년 만에 최저

통계청, '2020년 축산물생산비조사' 발표

닭 사육비 늘고 산지가격 11.6% 감소

"코로나19로 급식 등 판매 물량 줄어"

돼지·소 농가 수익 개선... "판매가 상승"

지난해 코로나19로 단체 급식 물량이 줄어들면서 육계(식육용 닭) 농가의 수익성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값이 뛰면서 산란계 농장은 흑자로 전환했고 소와 돼지 농가의 수익성도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육계 1마리당 순수익은 1년 전보다 78.8% 줄어든 38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이 2002원인데 키우는 데 들어간 사육비가

1964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육계 산지가격도 1121원으로 11.6% 감소했다.

이반에 기록한 육계 농가의 순수익은 2016년(20.7원) 이후 가장 적은 기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적인 모임과 외식이 줄어든 가운데 AI 이슈까지 부각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반대로 산란계 1마리당 순수익은 2590원으로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2216원, 1823원의 손실을 낸 바 있다.

AI로 인한 대량 살처분 여파로 계란

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이 기간 특란 10개당 도매가격은 1105원으로 전년 대비 13.4% 올랐다. 여기에 산란율이 81.1%로 1.7%포인트(p) 오르면서 생산성도 향상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육계의 경우 산란계에 비해 AI 피해가 적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급식 등에 나가는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돼지 농가의 수익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비육돈(고기의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돼지) 1마리당 순수익은 4만7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40.6% 늘었다.

이는 2004년(4579.7%)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당시 2003년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고기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진 이후 회복세가 반영됐다.

통계청은 2019년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이번 수익성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대신 사육 마릿수 감소와 코로나19에도 돼지고기 소비가 줄어들지 않

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돼지 마릿수가 2019년 12월보다 2%가량 줄었다"며 "택배 배송이 활발해지면서 돼지고기 판매 물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소를 키우는 농가들의 수익성도 판매 가격 상승으로 소폭 개선됐다. 지난해 한우비육우(소고기의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한우 수) 1마리당 순이익은 5만8000원으로 2019년 7만6000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육우(고기를 얻으려고 키르는 소) 1마리당 순수익은 57만4000원으로 1년 전 60만2000원에서 적자 규모가 줄었다.

한우비육우와 육우 100kg당 생산비는 가축비, 사료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각각 5.5%, 3.4% 증가한 6만3000원, 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한우번식우(송아지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한우 암소)



1마리당 순이익은 21만6000원으로 70.8% 증가했다. 이는 송아지 1마리 판매가격이 4295원(수컷, 6~7개월 기준)으로 9.3% 늘어난 영향이다.

젓소의 경우 사료비 증가로 인해 1마리당 순수익이 4만원으로 1.5% 감소했다. 이 기간 수입 건조 가격은 kg당 356원으로 0.8%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농가 수익성이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육계의 경우 코로나 영향으로 순수익이 줄기는 했지만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흑자는 유지됐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이마트, 레고 해리포터 시리즈 단독 판매

24일 서울 이마트 성수점 완구매장에서 모델들이 레고 해리포터 시리즈 20주년 기념 신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와 SSG닷컴, 하우디(Howdy)는 오는 6월 1일부터 레고 해리포터 시리즈 신상품 8종 판매에 나서며, 그 중 4종 단독 판매에 나선다.

## 전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21곳 신규 지정

한우 17곳·젓소 3곳·염소 1곳

전남도는 환경친화 축산 실적을 유도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에 21개 농가를 신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지정 농장은 총 309개 농가로 늘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은 한우 17곳, 젓소 3곳, 염소 1곳이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은 가축 생태에 적합한 사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한 역점 사업이다.

녹색축산농장 지정은 농가에서 해

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교부한다.

지정 대상은 유기 또는 무항생제 인증, 안전관리인증(HACCP),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정부 인증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중 1가지 이상 인증(지정)을 받아야 한다.

가축 사육밀도, 축사 위생관리 상태, 분뇨처리 현황 등 22개 항목을 도와 시·군 담당자,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반이 심사하며, 심사 결과 총 200점 중 160점 이상을 얻은 농가를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한다.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에는 유기·관리 등을 위한 인센티브 농가당 운

영자금 200만원을 매년 지원한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녹색축산기금 용자 등 각종 축산정책 사업의 우선 지원 자격도 주어진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환경 친화형 축산 실적을 독려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바라는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녹색축산농장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녹색축산농장 309개소 외에도 1647농가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아 2019년부터 3년 간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 "2039 여성 80% 사용"...화해 앱 다운로드 천만 돌파

피부 특성에 따른 화장품 정보 탐색부터 쇼핑까지 가능

버드뷰는 뷰티 앱 화해 누적 다운로드 수가 1000만건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화해는 2013년 7월 서비스 출시 후 사용자 중심 모바일 뷰티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피부 특성에 따른 화장품 정보 탐색부터 쇼핑까지 가능하다. 특히 MZ세대 여성에게 사랑 받고 있다. 국내 2039 여성인구(통계청 기준 659만명)의 80%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다.

소비자와 중소 브랜드 연결을 통해 새로운 뷰티 생태계를 구축했다. 실사용자가 작성한 클린리뷰 600만건 이상을 바탕으로 카테고리별 랭킹을 공

개하고 뷰티 어워드도 개최했다. 신진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선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18년 화해쇼핑을 론칭했으며, 지난해 흑자 전환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천만인의 나의 뷰티 페이스'를 진행한다. 다음달 1일까지 화해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톱10 브랜드를 공개하고 최대 69% 할인한다. 매일 최대 1만 원 할인쿠폰을 선착순 2000명에게 증정한다. 기획세트 특가전과 1+1 증정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다.

다음달 6일까지 '뷰티에 진심 쉐어링'도 개최한다. 뷰티에 진심이었던 순간을 사연으로 접수, 최우수 10개작



을 화해 브랜드 광고로 제작할 계획이다.

버드뷰 이우 대표는 "화해는 사용자 참여와 관심으로 성장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 브랜드와 제품을 찾았으면 좋겠다. 국내 대표 뷰티 플랫폼으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유나기자

## U+아이들나라, 누적 이용자 수 4300만 돌파

'책읽어주는TV' '영어유치원' 등 인기 월평균 5일 이상 시청고객 5% 증가



LG유플러스는 자사의 유아동 전용 플랫폼 'U+아이들나라'의 누적 이용자 수가 지난 4월말 기준 4000만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U+아이들나라는 지난 2017년 6월 IPTV 전용 키즈서비스로 시작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U+아이들나라에서 올해 1분기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서비스는 '캐릭터', '책읽어주는 TV', '영어유치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11월 콘텐츠를 이어보기 쉽고 자주 사용하는 메뉴의 접근성을 높이는 아이들나라 신규 홈

화면을 추가하고, 청담어학원과 함께 전문 교육기관 커리큘럼 기반의 영어 콘텐츠 강화하면서 월평균 5일 이상 사용자가 5% 이상 증가했다.

LG유플러스는 U+아이들나라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로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U+아이들나라 고객을 대상으로 연 온라인 커뮤니티 '유플맘 살롱'에서 공감사례를 발굴해 서비스 개선에 반영해오고 있다.

유플맘 살롱에서 수집된 의견은 실제 서비스 개선에 활용된다. "TV를 보면서 홈스쿨링이 되면 좋겠

다", "쌍방향 상호작용이 가능한 콘텐츠가 나오면 좋겠다"는 등 고객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말 키즈 전용 리모컨 '유플펜'을 출시했다. 유플펜으로 전용 도서를 찍으면 tv에서 관련 영상이 재생되고, 울동·동요 콘텐츠를 보면서 춤을 따라 출 수도 있다.

또한 '영어유치원에서 아이들나라 콘텐츠 연계활동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고려해 청담어학원과 제휴한 큐레이션 영상 및 교재 위크북을 받아 tv로 영상을 보고 공부한 내용을 학습지로서 다시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번 4월말에 진행된 U+아이들나라 4.0 2차 업데이트에서는 자녀의 유튜브 동영상 과몰입이 걱정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유튜브 키즈'의 재생 잠금기능 추가 등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청담어학원 커리큘럼에 기반한 영상이 아이의 영어레벨에 맞게 흘러나오는 기능도 추가됐다.

이 밖에도 U+아이들나라의 배경음 변경이 가능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캐릭터 영상을 연속으로 재생하는 채널을 '아이들채널'에서 바로 볼 수 있으며, 검색기능을 첫 화면에 추가해 텍스트·음성검색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김민정기자

## SKT 티맵, 고속도로 전방 사고 3분 만에 알려준다

도로공사와 개발한 '사고포착알리미' 서비스 시작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기반 위치 분석 플랫폼 리트머스를 활용해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사고포착알리미' 서비스를 티맵모빌리티의 T맵을 통해 2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상황을 신속하게 후방 차량들에 알리 치 분석 플랫폼 리트머스를 활용해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사고포착알리미' 서비스를 티맵모빌리티의 T맵을 통해 2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SKT가 T맵을 통해 리

트머스 플랫폼에 수집되는 사고 정보 데이터를 분석, 사고를 감지해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하고, 도로공사는 CCTV를 통해 사고 여부를 확인한 후, 리트머스 플랫폼을 통해 사고 발생 2km 내 후방 차량들의 T맵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사고포착알리미는 2차 사고 예방을 통해 더 안전하고 원활한 운전을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추돌사고의 경우, 사고 후 15분~20분이 지난 시간에도 사고지점 후방에서 사고 관련 급정거가 발생하는 등 추가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앞으로도 SKT는 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정제 꼬리 알림, 실시간 신호 정보 알림 등 고객들의 드라이빙 경험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서선욱기자